

건강·경제적 곤란 '심화'

서울시 거주 여성노인 생활실태 조사결과

우리나라 여성노인 가운데 혼자 사는 여성노인은 16.7%로 이들 대부분이 건강 문제, 경제적 곤란, 고독감 등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최영희)가 서울시에서 거주하는 60세 이상 여성노인 5백6명을 대상으로 가족형태 및 부양 실태, 경제생활, 삶의 만족도, 노인복지정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를 한 동국대 김익기(사회학) 교수는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여성노인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심과 정책이 전무하다"며 "국가는 건강, 여가활동, 생활보장 등 각기 노인의 다양한 욕구에 따른 다각적인 노인복지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우가 54%로 가장 많았고, 본인이 직접 해결하는 경우 19.6%, 배우자 의존이 14%를 차지했다. 정서적 지원에서도 아들·며느리가 32.7%, 딸·사위 20%, 사회단체·정부보조 18.6%순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적 지원은 본인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가 51.7%, 아들·며느리 28.6%, 딸·사위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9.6%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노인에 대한 부양은 대부분 아들·며느리가 해결하고 있는 반면 사회단체나 정부는 정서적 측면에서는 어느정도 역할을 하고 있지만, 경제적 신체적 지원은 극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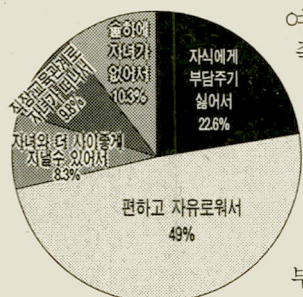
경제생활실태

노인의 경제생활 부문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 경제적 여유가 '중간정도'라고 응답한 경우가 39.3%였고 '비교적 여유있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9살 정도 높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여성노인이 급속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에 대한 정책은 전무하다.

가족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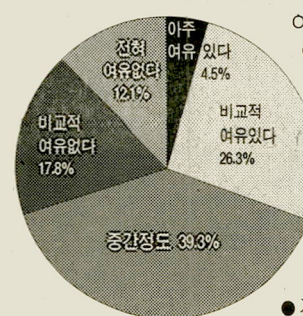
●자녀와 따로 사는 이유

사는 독거노인이 16.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미혼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도 7.7%로 조사됐다.

자녀와 함께 사는 이유에 대해 '당연하다'고 응답한 노인이 62.8%, '건강문제' 14.2%, '경제적 사정' 11.7%였으며 손녀 돌보기와 가사일을 도와주기 위해 함께 사는 노인도 11.3%로 조사됐다.

한편 자녀와 따로 사는 이유에 대해서는 '편하고 자유로워서'가 49%, '자식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싫어서'라고 답한 경우 22.6%, 슬하에 자녀가 없는 노인도 10.3%로 조사됐다. 여성노인이 혼자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해 건강문제를 꼽은 노인이 33.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경제적 곤란 24%, 고독감 23.1%, 급할 때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 어렵다 1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양실태



여성노인의 부양실태를 조사한 결과 경제적 지원은 아들·며느리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54%로 가장 많았고, 본인이 직접 해결하는 경우 19.6%, 배우자 의존이 14%를 차지했다.

●경제적 여유

다' 26.3%, '여유가 없다'가 17.8%로 나타났다. 한편 생활비 마련방법은 자녀의 돈이 59.5%로 가장 많았고, 본인 수입 19.8%, 재산소득 14.8%, 생활보호·노령수당으로 해결하는 여성노인이 5.4%로 나타났다. 여성노인의 생활비는 자녀에게 의존하거나 본인 스스로 해결하고, 정부의 지원으로 해결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달 용돈은 10~19만원이 35.4%로 가장 많았고, 10만원 미만 24.2%, 30만원 이상 21.4%, 20~29만원이 20%로 이들중 35.5%는 의료비에 용돈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경조비·친목회비 34.3%, 생활비 16.5%, 저축·기타 7.8%, 손자녀용돈 5.9% 순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적 상황은 혼자 사는 독거노인인 경우, 배우자가 없을 경우, 연령이 높고 학력이 낮을수록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실태

여성노인들이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은 신경통과 관절염이 63.2%로 가장 많았으며, 혈압과 관련된 병을 앓고 있는 경우 37.2%, 치아장애 27.7%, 위장병을 앓고 있는 경우 2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병이 없다고 응답한 노인은 7.0%에 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여성노인들이 한가지 이상의 병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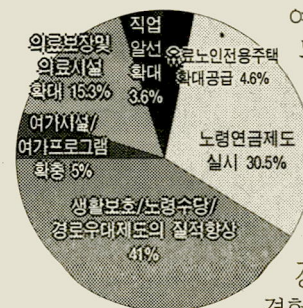
혼자사는 노인 16.7% 달해 한달용돈 19만원 미만 60% 가장 많은 질병 신경통·관절염 경로우대 혜택 경험 '최고'

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으로 고통을 받을 때 아들·며느리(60.9%)가 병수발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딸(18.8%), 배우자(15.8%), 가정도우미·가정봉사원(3.2%), 시설봉사자(1.4%)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몸이 아플 때 가장 어려운 점으로 여성노인은 '자식에게 부담을 줄까봐 걱정이 된다'고 답한 경우가 43.8%, '활동하는데 불편하다' 35.4%, '치료비 걱정' 10.7%,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대답한 노인도 10.1%로 비교적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노인복지정책



●노인복지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

당·경로당 26.5%, 노인종합복지관 19.6%, 노령수당 17.8%, 양로시설·요양

시설 3.4%, 고령자취업알선센터 2.6% 등으로 노인복지에 있어 매우 낮은 혜택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경로우대혜택을 제외하고는 여성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주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만족하지 않는다'가 40.8%인 반면 '만족한다'고 응답한 노인은 9.9%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저 그렇다', '잘모르겠다'고 답한 노인도 각각 22%, 27.3%로 나타났다.

정부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홍보부족(36.6%)을 우선으로 꼽았고 '노인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 정책을 펴고 있다(21.2%)', '수혜대상이나 수혜금액이 너무 적고 수혜혜택이 다양하지 못하다(38.9%)' 등으로 조사됐다. 또한 '사회복지전문가가 없다(3.3%)'고 답한 노인도 있었다.

노인복지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과제는 생활보호·노령수당 경로우대제도의 질적향상을 지정한 노인이 41%, 노령연금제도 실시 30.5%, 의료보장 및 의료시설 확대에 15.3%가 응답했다. 또한 '여가시설 프로그램 확충 5%, 유료노인전용주택 확대공급은 4.6%가 꼽았다.

생활만족도

여성노인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에서 '내 삶에 만족한다'라는 항목이 10점 만점에 평균 5.82로 측정돼 가장 낮은 항목으로 나타났으며, '나는 가치있는 사람이다'라는 항목은 평균 6.23으로 가장 높게 평가됐다.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자녀가 자신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생각할수록,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친한 친구의 숫자가 많을수록,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여성노인일수록 삶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송미선 기자〉